

【2기 첫 스타트 대시 예산·공격의 행정에】

안녕하세요. 오카야마 시장 오모리입니다.

오늘 저의 새로운 임기 첫 예산이 되는 2018년도 당초 예산안을 발표했습니다.

이 예산은 지금까지 씨를 뿌린 노력들의 꽃을 피위기 위한 중요한 예산으로 이름하여 2기 첫 “첫 스타트 대시 예산”.

우선 첫 번째는 마을 만들기

- 중산간, 주변지역 주민의 미래 불안에 대응하기 위해 35억엔이 넘는 지역 진흥 기금을 활용하여 향후 10년을 목표로 한 진흥책인 「지역의 미래 만들기 추진 사업」을 시작합니다. 내년도에는 1억 8천만엔의 예산을 확보하고 첫 해부터 적극적으로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 4년 간에 걸쳐 검토를 해왔던 노면전차 승강장의 오카야마역 앞 이전 건은 교통 시뮬레이션 조사에서 심각한 정체가 발생하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기에 사업화로 이어지는 도시 계획 결정 등의 절차를 수행합니다. 또한 거리 증폭, 도로 순환 등 미래 방식에 대해서도 검토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산업

- 시내 기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소규모 기업과 중소기업 중 특히 체감 경기로 어려움이 있고 심각한 일손 부족 등에 의한 생산 확대가 어려운 소규모 기업에 기계 설비 투자를 강화하는 보조제도 (보조율 2/3 이내, 상한 50만엔)을 신설합니다.

세 번째는 육아

- 작년 4월 현재 전국 위스트 2위의 대기 아동(849명)을 2019년도 말까지 해소하기 위해 대기 아동이 특히 많은 1, 2세 아동과 이른바 「3세의 벽」이 존재하는 3세아의 입원 확충에 관한 보조 사업을 실시하여 오카야마시 독자적인 2퍼센트 급여 가산과 함께 보육사의 확보를 도모합니다.
- 정형적인 업무를 외부 위탁함으로써 보육 상담자가 입원을 희망하는 보호자를 인가와 보육원을 포함한 보육 시설과 서비스를 적절하게 연결하는 「다가가는 지원」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합니다.

네 번째는 건강, 복지

- 국민건강보험 특정검진의 검진을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검진 비용을 원코인화 (2,050엔⇒500엔) 합니다.
- 여러 지방 기업, 금융 기관 등으로 구성해 건강 관련 산업을 통한 지역 활성화에도 이바지하는 일본 최초의 SIB(소셜 임팩트 본드: 건강 증진 성과에 따라 보수를 지급)를 활용한 건강 포인트 사업 실시를 위한 준비를 진행합니다.

마지막으로 건전 재정의 확보

- 일반 회계 총액은 3,172억엔으로 전년 대비 0.9% 증가. 사회보장 관계 경비의 증가에의 대응 등을 통해 과거 최대의 예산 규모가 되었습니다만, 경기 회복 기조를 배경으로 한 세수 증가와 시 발행 채권의 신규 차입 억제 등을 통해 재정 건선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 재원 조정을 위한 기금 잔액은 전년 동기 대비 24억엔 증가, 시 발행 채권 잔액은 전년 동기 대비 44억엔 감소로 재정 지표와 함께 안정적인 추이입니다.

저 자신은 후세에게 빛을 남기지 않는 건전한 재정을 유지하면서 시민의 행복과 미래 발전을 이어갈 예산이 제대로 확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